

# 평강

## 학부모 가이드

1.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문을 닫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9절)

오늘 본문 19절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로서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거룩한 기쁨이자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두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2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번째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세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도마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25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도마를 만나시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시고 세번째로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도마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첫번째는 두려움을 잠재우시기 위하여, 두번째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번째는 불신앙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불신앙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도마와 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두려움과 불신앙을 벗어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